



기본인명구조술Ⅱ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시 응급처치법

이 희 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음식을 먹다가 질식 사망하거나 뇌사상태가 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떡이나 고기, 소아일 경우엔 젤리나 사탕, 유아는 동전이나 장난감 등으로 기도가 막혀 산소 부족 현상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급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도가 폐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환자의 의식상태나 기도가 폐쇄된 정도에 따라서 응급처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물 등에 의한 기도 폐쇄가 없더라도 혀의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으며, 또한 목의 구조물(연구개와 후두개)이 판막과 같은 역할을 하여 호흡을 할 때 기도를 폐쇄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마를 눌러주고 턱을 들어주는 '두부후굴 하악 거상법'으로 기도확보를 해야 하며, 맥박과 호흡이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30회 가슴압박과 2회 구조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면 환자는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 같이 보이고, 두 손으로 목을 감싸 쥐고(V-sign) 기침을 하거

나 목 부분에서 심한 천명음이 들리게 된다. 또한, 목의 하부나 배의 상부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보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 주위가 튀어 나온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되면 환자는 적절한 호흡을 하지 못하므로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되고 시간이 더욱 경과하면 뇌의 산소가 부족하여 의식을 잃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므로 구조자는 최단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목에 뭐가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 구조자는 환자의 등 뒤에 위치하여, '하

임리히법'을 시행한다. 구조자의 한쪽 손을 말아서 주먹을 쥐어 채로 환자의 명치와 배꼽사이에 위치시키고, 다른 쪽 손으로 주먹을 쥐어 손가락을 감싼 다음에 양쪽 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강하게 5회 압박한다.

또한, 의식이 있는 경우엔 상기도 부분폐쇄일 경우가 있으므로 기침유도를 한다.

임신말기이거나 복부비만인 환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중 흉부압박과 같은 방법으로 5회 압박한다.

의식이 없을 경우 바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공호흡 중 구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한다.

유소아일 경우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하는 환자의 90% 이상이 5세 이하의 소아이다.

1세 이상인 소아에서는 성인과 같은 하임리히법이 권장되며 영아가 울지 못하거나 청색증이 있는 경우, 기도폐쇄를 의미하므로 2회의 인공호흡을 통하여 기도 폐쇄 여부를 확인한 후, 머리는 가슴보다 낮게 하여 검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영아의 턱과 머리를 받치고 견



갑골과 견갑골 사이를 5회 등치기 한다.

5회 등치기로 기도폐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목과 머리를 받치면서 조심스럽게 뒤집는다.

머리는 가슴보다 낮게 하여 심폐소생술 보다 느리게 다시 5회 흉부압박을 한다.

이물질이 구강 내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한 후 영아의 입과 코를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덮어서 구조호흡을 실시한다. ㉞